

01 교회소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한 제자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같은 성령이 임한 성령강림절.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의 증거가 된다.

03 기획특집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테두리 밖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살펴봄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04 간증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상행 대동맥 박리 상태로 장거리 이동, 3일간의 의식불명 등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을 회복한 김문자 권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994호 2023년 5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강림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

01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02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03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04

믿음의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05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나갑니다.

06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07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생깁니다.

08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좇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14~26)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참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진실하게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생명이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사랑은 무엇이며,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함이 있는 사랑만이 참사랑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는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실함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려 할 것이니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으며, 행함이 없는 고백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며(요 14:15),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참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단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

혀 죽기까지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응답과 축복, 눈에 보이는 표증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 믿음과 사랑의 연관성

야고보서 2장 14~17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원리가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하십니다. 곧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처럼 사랑에도 행함이 따라야 참사랑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행함이 있는 사랑만이 참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영적인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의 근본이 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인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점차 성장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도 깨우쳐 알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3. 믿음 성장에 따른 사랑의 깊이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느끼는 사랑과 점차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사랑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전혀 모르던 엄청난 사랑, 곧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느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알게 될수록 하나님 사랑 또한 더 깊이 느낄 수 있지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은 만큼 하나님 사랑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부모의 마음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중심에서 느끼듯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점차 성장하여 장성한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2:12~14).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 4:19)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애뜻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며 사랑의 마음도 더욱 커지므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닮은 온전한 사랑의 차원에도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4.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의 증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이니 믿음 성장과 함께 커지는 사랑도 결국은 행함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믿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

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지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되고,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창 22:12).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으로부터 모욕당하면서도 그가 두려워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삼상 17장).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행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었지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지극히 사랑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함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세상에서 잠시나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랑의 증거나 표현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지요. 더구나 영원히 거할 천국에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행한 만큼 상급과 면류관, 빛나는 영광으로 갚아 주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믿음의 행군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도 아무런 축복이 오지 않으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직 감사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 그 사랑의 증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지요. 궁핍한 이에게는 풍요로움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에게는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계의 비밀스러운 것까지라도 알려 주시고 성령의 깊은 감동함 가운데 말씀들을 풀어 주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랑의 증거로 받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이 주어지니 하나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천국 소망 역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구원의 테두리 밖’이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아름다운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성령을 소멸치 말며 ...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19~22) 당부하셨으니 나는 분명히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다 해도 지옥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니므로 신속히 주님을 믿고 구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2. 믿음 없이 억지로,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경우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설교 말씀을 자기 생각이나 지식, 세상 이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 정죄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훼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교의 장 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받고자 돈벌이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생각하고, 단순히 종교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구원과 천국에 두지 않고 이 땅의 축복된 삶에만 두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으니,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3.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가도 잃어버리는 경우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든지 행치 아니하든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천국 처소와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

습니. 대부분의 경우 오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이 관영한 오늘날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인도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믿기는 더더욱 어렵기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영적 체험 없이는 마음 중심에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영적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기 쉬우며 시험 환난이라도 닥치면 쉽게 시험에 들고 구원에서 멀어지지요. 만일 진리를 왜곡해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믿음 있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경우

구원의 테두리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체험도 있는데 다시 죄를 지어 구원에서 멀어진 경우입니다(히 6:4~6, 10:26). 주님을 영접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 큰 죄를 범해 총망함을 잃거나 다시 세상을 취하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져 회개하지도 않은 채 이 상태에 머물면 다시 죄악에 물들어 결국 구원받을 믿음마저 잃고 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으면 다시 구원을 좇아 세상을 취하거나 범죄할 수 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진리로 지켜야 합니다.



“상행 대동맥 박리로 인한 위기의 순간마다 기적적으로 살려 주셨어요!”

김문자 권사 (73세, 순천만민교회)

2023년 2월 23일(목) 이른 아침, 저는 겨울 동안 잠시 쉬고 있던 원정 발일을 위해 오랜만에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사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20여 분 걸리는 전북 남원시 한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일한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가슴에서 ‘딱!’ 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통증에 저는 쓰러져 뒹굴다가 간신히 기어서 밭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 기도를 받았지요. 비닐하우스 주인은 제가 사는 산동면의 조그만 병원으로 저를 데려다주었지만, 의사가 없어서 119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119구급차를 타고 전남 순천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동승한 구급대원은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제게 두 차례 진통제를 입에 넣어 주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해 보니 대동맥 파열이었고 의사는 이곳에서는 수술할 수 없으니,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사이 자녀들은 구급대원으로부터 연락받아 급히 병원으로 왔고,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 셋째 딸이 동승하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운데 딸은 공주만민교회 담임목사님께 전화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의 기도를 부탁했지요.



당시 대전만민교회에서 ‘원장님 초청 호남지방회 성령충만 기도회’가 있어서 담임목사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고 발생 1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경, 저는 휴대폰을 통해 원장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잠이 들어 편안히 병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쉬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잠들었다는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지요. 그날 밤 10시경, 저는 부천시 심장 전문 병원에 도착해 11시경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제 병명은 ‘상행 대동맥 박리’였지요.

자녀들은 제 수술이 마쳐지기까지 밤새 대기하였고, 이때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계속 틀어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2월 24일(금) 새벽 5시경, 8~13시간 걸리던 수술이 약 6시간 만에 마쳐져 자녀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술이 잘돼 빨리 끝났던 것이지요. 수술 후 담당 의사는 ‘대동맥 박리 상태에서 장거리로 수술하러 오신 분들은 과열된 대동맥이 더 과열돼 거의 사망에 이르는 데,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은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고비를 넘겼지만, 또 한 차례의 위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수술은 빠르게 잘 되었지만 3일 동안 제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길어질 경우 뇌 손상, 장기 괴사, 식물인간 상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26일(주일), 본교회에 다니는 둘째 딸은 저녁예배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저를 위해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식이 돌아왔고 바로 그다음 날인 27일(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요. 이후 몸은 빠르게 회복해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지 9일 만인 3월 7일(화)에 퇴원하였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온 후 자녀들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지켜 주셨는지를 들으며 오열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

나님의 사랑에 오열하게 되지요. 몸이 회복되는 기간에 저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연장자임에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과 일꾼임에도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한 것 등을 마음 깊이 깨우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막상 상대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 영적인 사랑이 없는 마음과 더 낮아져 섬기지 못한 것 등을 회개하며 벗어버리기 위해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첫 정기 검진 결과,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찾은 일상에 너무 감사하며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대동맥 박리’란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 중 하나인 대동맥 혈관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진 현상으로, 이 경우 혈압이 떨어져 순식간의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상행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 약 40%의 환자가 사망하며, 치료 도중 10%의 환자가 사망하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281-2468, 010-9773-701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어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영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문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